

한국·중국의 국어과 교육과정 고전문학 텍스트 선정 비교 및 교과서 수록 양상

백순철 대구대학교 국어교육과 조교수

이창희 고려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 I. 서론
- II. 한국과 중국의 고전문학 텍스트 선정 기준과 성취 기준 비교
 - 1. 선정 기준 비교
 - 2. 성취 기준 비교
- III. 중국 어문 교과 고전문학 텍스트의 목록 양상 분석
 - 1. 창작 시대별 양상
 - 2. 양식별 수록 양상
- IV. 한국 문학 교과 고전문학 텍스트의 목록 양상 분석
 - 1. 창작 시대별 양상
 - 2. 양식별 수록 양상
- V. 결론

I. 서론

이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중등교육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고전문학 텍스트의 선정 양상을 비교하고 교과서 수록 양상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둔다. 논의의 방향은 양국 국어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문학’ 영역에 수록된 고전문학 작품들의 경향성을 살펴 그 특징적 국면들을 비교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궁극적으로는 상호간 긍정적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논의에 앞서 양국의 국어과 교육과정 내용 영역을 먼저 비교해 보기로 한다. 2011년 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볼 때 한국의 공통교육과정 ‘국어’(7~9학년)는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의 5개 영역으로 나뉘며,¹ 선택교육과정은 국어I(선수과목), 국어II(연계과목), 화법과 작문, 독서와 문법, 문학, 고전의 6과목으로서 이 역시 화법, 독서, 작문, 문법, 문학의 5개 내용

1 국어과 내용 체계의 하위 영역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의 6영역에서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의 5영역으로 축소되었다.

체계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에 비해 중국의 현행 “全日制義務教育語文課程標準”²을 보면 우리의 중학교에 해당하는 중국의 초중(初中) 과정의 국어과 내용 영역은 ‘글깨치기(識字與寫字)’, ‘읽기(讀解)’, ‘쓰기(寫作)’, ‘말하기 · 듣기(口語交際)’의 4개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³ “教育部《高中語文新課程標準》”을 보면 고중(高中) 과정(10~12학년)의 국어과는 필수과목으로 ‘독서와 감상’, ‘표현과 교류’를, 선택과목으로 ‘시가와 산문’, ‘소설과 연극’, ‘신문과 전기’, ‘언어 문자 응용과 탐구’·‘문화 논저 선독과 전문적인 주제 연구’를 두고 있다. 양국의 체계를 비교해 보면 한국의 ‘문법’ 영역이 중국에는 빠져 있는 대신 초보적인 단계의 ‘글깨치기(識字與寫字)’가 들어 있고, 한국의 ‘문학’ 영역처럼 중국에는 문학 영역이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않고 읽기(讀解), 독서와 감상, 시가와 산문, 소설과 연극 등의 과목을 통해 문학작품을 폭넓게 다루고 있다.⁴

한국의 국어과에서 문학작품을 주로 수록하고 있는 교과는 국어와 문학이다. 2010년까지는 국어는 국정 체제로, 문학은 검인정 체제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2011년 이후 국어와 문학 모두 검인정으로 전환된 후에는 교과서 검정을 통해 중학국어는 중1 23종, 중2 16종, 중3 12종으로 차례로 통과되어 현재 중1~3학년이 모두 출간되는 교과서는 최종 12종 72권이다. 고등

2 중국에서는 교육과정을 ‘課程標準’이라고 한다. 이전에는 ‘教學大綱’이라고 하였다.

3 단계별 목표에서 ‘종합성 학습’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별도의 영역이라기보다 어문과정 내부의 상호 연관성과 어문과정과 다른 과목 및 실생활간의 연관성을 강화시키며, 학생이 전면적으로 균형 있게 어문 소양을 양성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4 양국의 국어과 교육과정 내용 영역을 비교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과정		내용 영역
한국	국어	듣기 ·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국어 I	화법, 독서, 작문, 문법, 문학
	국어 II	
	문학	문학
중국	초중	글깨치기(識字與寫字), 읽기(讀解), 쓰기(寫作), 말하기 · 듣기(口語交際)
	고중	필수 독서와 감상, 표현과 교류
	선택	시가와 산문, 소설과 연극, 신문과 전기, 언어 문자 응용과 탐구. 문학 논저 선독과 전문적인 주제 연구

학교 국어 역시 모두 16종 32권이 현재 출간되고 있다. 고등학교 문학은 문학1과 2 합해 모두 14종 26권이 출간되어 있다. 두 곳의 출판사에서 문학1과 2 중 하나만 통과된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7~12학년까지의 국어와 문학을 합한 교과서의 숫자는 총 130권에 달한다. 여기에 실린 고전문학 작품 수 또한 망라하면 그 수가 상당하다. 여기에 2011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국어의 선택과목으로 국어I, 국어II, 화법과 작문, 독서와 문법, 문학, 고전 등 모두 6개 과목이 제시되어 문학1, 2가 하나로 통합된 대신 ‘고전’ 과목이 더 추가되었다.⁵ ‘고전’의 경우 아직 그 방향이 분명하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과목의 성격상 고전작품이 교육 제재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국어과 ‘문학’ 영역에서 고전문학 작품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경우 초중 과정 교과서에는 암송 대상 작품이 제시되어 있지만, 고중 과정 교과서에는 암송에 대한 제약이 없고 작품 선택의 폭이 상대적으로 매우 넓게 허용되어 있다. 하지만 대체로 학년이나 과정에서 학습해야 할 작품의 수나 분량을 학습목표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라 할 수 있다.⁶ 한국에 비해 다소 강제적인 느낌이 없지 않으나 전통 문화와 역사에 대한 그들의 자긍심과 자국어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이해 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여기서는 한국과 중국의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텍스트를 선정하는 기준과 성취 기준을 비교하고, 중국 고중 과정의 ‘어문’ 교과서와 한국의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의 목록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5 2011개정 교육과정 국어과의 내용체계는 단계별로 공통과정 ‘국어’ / 선택 과정 ‘국어I’, ‘국어II’ / 선택 영역 ‘문학’으로 차례로 되어 있다. 여기서 특히 문학교육은 국어 과목의 ‘문학’ 영역과 선택 영역 ‘문학’ 과목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6 “全日制義務教育語文課程標準”的 학습 목표를 보면 “과외 독서량이 최소한 260만 자가 된다. 매 학년마다 2~3부의 명저를 읽는다. 우수 시문 80편을 외운다.”라고 되어 있고, “高中語文新課程標準”에서는 “1년 내 스스로 5부 이상의 과외 문학명작 및 다른 읽을거리를 읽는다. 총량은 최소 150만자이다.”라고 되어 있다.

II. 한국과 중국의 고전문학 텍스트 선정 기준과 성취 기준 비교

1. 선정 기준 비교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한국의 국어과 교과서 ‘문학’ 영역 제재선정 기준을 보면 문학사적 대표성, 갈래의 다양성, 시대의 다양성, 작가의 다양성, 작품 수록 방법 등을 중심으로 하되 국어II와 문학 등 상위 과정에서 매체 활용 가능성을 추가로 설정하고 있다. 이외 문학에서는 텍스트 이외 교육과정의 연계성, 학습자의 수준, 사회적 변화와 요구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⁷

이러한 제재 선정 기준들에 나타나는 중요한 조건들을 정리하면 ‘대표성, 다양성, 효율성’으로 요약된다. 첫째 ‘대표성’은 문학교육의 학습자들에게 이상화된 텍스트로서 교육될 만한 정전적 가치를 지니는가가 판단의 준거가

7 2009개정 교육과정 국어과 교과서 ‘문학’ 영역 제재선정 기준을 과정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과정		기준
선택교육과정	국어	① 문학사적 대표성 ② 갈래의 다양성 ③ 시대의 다양성 ④ 작가의 다양성 ⑤ 작품 수록 방법
	국어 I	① 문학사적 대표성 ② 갈래의 다양성 ③ 시대의 다양성 ④ 작가의 다양성 ⑤ 작품 수록 방법
	국어 II	① 문학사적 대표성 ② 갈래의 다양성 ③ 시대의 다양성 ④ 작가의 다양성 ⑤ 작품 수록 방법 ⑥ 매체의 활용 가능성
선택교육과정		(1) 교육과정: ① 교육과정 반영 ② 과목 간의 연계성 지향 (2) 학습자: ① 학습자의 문학 생활 ② 심리적인 특성 ③ 자기주도적 학습 (3) 사회적 요구: ① 타 문화 이해 향상 ② 사회적 배려 협약 ③ 사회적 관심 반영 ④ 통일 시대 지향 ⑤ 매체의 다양성 추구 (4) 문학작품의 특성: ① 문학사적 대표성 ② 갈래의 다양성 ③ 시대의 다양성 ④ 작가의 다양성 ⑤ 작품 수록 방법 ⑥ 매체의 활용 가능성

됨을 의미한다.⁸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경우 교사나 학습자의 문화적 선호보다는 전통적으로 승인되거나 교육과정에서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우선한다는 점이다. 고전문학 작품의 경우는 이러한 조건 기준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문학연구자들이 기술한 문학사에서 의미 있게 평가한 작품들을 교과서가 엄정하게 선별하여 수록하게 된다. 문학사 연구와 교과서의 정전성 문제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음으로 ‘다양성’은 갈래, 시대, 작가 등 작품의 실체를 조건 지어주는 요소들에 있어서 균형의 문제와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즉 고대로부터 조선 후기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별 안배를 고려하고, 성이나 계급 등 작자의 신분이나 사회적 처지의 편중을 유의하고, 특정 갈래가 배제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명제가 이 부분에서 요구된다.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 14종 26권을 살펴보면 대체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균형이 고려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효율성’은 작품의 수록에 있어서 원전이나 원전에 가까운 번역을 싣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텍스트의 발췌, 수정, 요약 등을 허용하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고전시가에서는 향가와 고려 가요 같이 작품의 번역이나 현대역에 있어서 통일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 비교적 이견이 적은 작품들을 채택한다든가, 고전산문의 경우 문체의 가독성과 주제의 선명성 등이 작품 수록에서 고려된다든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중국은 초중이나 고중의 ‘과정표준’에서 국어과 교과서 제재 선정 기준

8 일반적으로 정전이라는 용어는 특히 학교교과과정 속에서 공인된 텍스트나 해석 혹은 모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널리 인정받은 텍스트를 뜻한다. 정전이론의 두 가지 입장 중 기본주의의 입장은 텍스트 안에 기초적인 근거 또는 기본 원칙이 있다고 보고, 정전 텍스트가 보편 불변의 절대적인 어떤 가치를 체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반기본주의의 입장은 텍스트 자체에 기본적인 근거 따위는 없으며 정전으로 선별된 텍스트는 어느 특정한 시대의 특정한 그룹 혹은 사회집단의 이익이나 관심을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하루오시라네, 왕숙영 옮김(2002), 『창조된 고전』, 소명).

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따라서 교육과정의 주요 표현들을 통해서 교과서의 내용이나 제재 선정에서 어떤 부분들이 중요하게 작용하는지를 포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우선 초중 과정의 내용을 살펴보자.

제1부분 전언

……어문과정은 중화민족의 우수문화전통과 혁명전통을 계승하여 발전시켜 민족 문화에 대한 학생들의 동질감을 증진시키고, 민족 단결력과 창조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있어서 다른 무엇도 대신할 수 없는 장점이 있다.……

제2부분 과정목표

一. 총목표

1. 국어 학습 과정 중에서 애국주의, 집단주의, 사회주의 사상도덕 및 건전한 심미관을 양성시키고, 개성을 발전시키며, 창의성과 협력정신을 육성시켜서 점차 적극적인 인생 태도와 올바른 세계관, 가치관을 형성시키도록 한다.
2. 중화문화의 풍부함을 인식시키고, 민족 문화 지혜를 흡수하며, 당대 문화생활을 관심을 갖게 하고,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며, 인류 우수 문화의 영양을 흡수해서 문화 품위를 향상시킨다.⁹

초중 과정 ‘어문과정표준’의 기본 철학을 보여주는 전언 부분과 과정목표 중 총목표에 제시된 내용의 일부이다. 여기서 심미적 태도나 인성, 창의성 등 일반적인 내용 외에 유의해서 살펴볼 대목은 중화민족의 역사나 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함께 사회주의 국가의 집단적이고 애국적인 전통과 혁명정신의 계승이 중요한 교육의 이념과 목표로 제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고전작품에 대한 학습을 통해 민족정신의 계승과 집단적 동질감을 강화하는 동시에 현실에서의 실천성을 강화하는 토대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관규(2013)는 이러한 중국 국어과 교육과정의 특징을 국가주의적 정신과 문화

9 “全日制義務教育語文課程標準”.

적 가치의 중시로 분석하고 있는데 핵심을 짚은 지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초중 과정의 목표는 고중 과정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

고등학교 국어 교육과정은 반드시 자신의 우세를 발휘하여 학생들이 우수한 문화에 물들이게 함으로써 조국과 중화 문명을 사랑하고 인류 진보 사업에 헌신하는 정신 품격을 형성시키며 건전하고 아름다운 감정과 분발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는 인생 태도를 형성시킨다. 그리고 교육과정의 내용과 사회 발전, 과학 진보와 학생 성장 간의 관계를 증진시키고, 학생들의 적극적인 실천 활동 참여를 인도하여 사회와 자신을 인식하고 인생을 계획하는 것을 배우게 함으로써 학생 자립 교육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¹⁰

고중 과정 ‘어문과정표준’의 제1부분 전언의 두 번째 ‘과정적 기본이념’의 서술 중 일부이다. 여기서도 국어교육의 목표로 조국과 중화문명의 우수함에 대한 애정을 강조하고 있으며 인류나 사회를 위한 참여와 실천 역시 비중있게 서술하고 있다.

양 과정 모두 부분적으로 살펴본 것이지만 중국의 국어 교육과정에서 특히 문학 영역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은 공통적으로 ‘역사성’과 ‘실천성’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서 ‘역사성’에 함축된 의미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근대 이전 중화 문명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구축한 문화예술의 우수성에 대한 강조이며, 다른 하나는 근대 이후 혁명으로 새롭게 구축한 사회주의적 이념과 역사에 대한 자긍심이다. 물론 여기서 고전문학 작품과 관련되어 강조되는 부분은 전자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실천성’은 정서나 의식의 변화를 통해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까지를 이끌어내는 것을 말하는데, 자국어에 대한 인식과 국가나 사회를 위한 헌신의 관계를 매우 유의미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주요 고전작품들의 작가나

10 “教育部《高中語文新課程標準》”.

내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해석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고전에 대한 다소 강제적인 암송 등이 교육과정에 있는 것을 보면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문학교육의 가치와 역할을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성취 기준 비교

양국 국어과 교육과정 ‘문학’ 영역의 성취 기준을 살펴보기 전에 2011 개정 교육과정에서 국어과의 과정별 목표에서 단계별로 문학의 학습목표가 어떻게 설정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1. 2011개정 교육과정 국어과의 과정별 목표

영역	목표
공통 교육 과정	<p>국어 활동과 국어와 문학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국어 활동의 맥락을 고려하여 국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며, 국어를 사랑하고 국어 문화를 누리면서 국어의 창의적 발전과 국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p> <p>가. 국어 활동과 국어와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익힌다.</p> <p>나. 다양한 유형의 담화와 글을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생산한다.</p> <p>다. 국어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어 생활을 능동적으로 하는 태도를 기른다.</p>
선택 교육 과정	<p>국어 활동과 국어와 문학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건전한 교양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일반적인 국어 능력을 신장시켜 국어의 발전과 국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p> <p>가. 국어 활동과 국어와 문학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국어를 창의적으로 사용한다.</p> <p>나. 다양한 유형의 담화와 글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수용·생산함으로써 교양인이 갖추어야 할 일반적인 국어 능력을 함양한다.</p> <p>다. 국어 문학에 흥미를 가지고 국어 현상을 탐구하여 국어 생활과 국어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태도를 기른다.</p>
	<p>국어 활동과 국어와 문학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성숙한 교양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적인 국어 능력을 신장시켜 국어의 발전과 국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p> <p>가. 국어 활동과 국어와 문학에 대한 전문적이고 심화된 지식을 익혀 다양한 상황에서 국어를 창의적으로 사용한다.</p> <p>나. 다양한 유형의 담화와 글을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수용·생산함으로써 교양인이 갖추어야 할 심화된 국어 능력을 함양한다.</p> <p>다. 국어 문학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 지향적인 국어 문화를 창조하는 태도를 기른다.</p>

선택 교육 과정	문학	<p>'문학'은 '국어'와 '국어 I', '국어 II'에서 학습한 지식, 기능, 태도를 바탕으로 다양한 학문과 직업에서 문학의 가치를 인식하고, 적절한 문학 활동을 통해 문학을 올바르게 수용하며 생산하는 전문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즉 통시적·공시적으로 다양한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문학의 제반 양상을 이해하고 문학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이를 자신의 삶과 연계하여 이해함으로써 예술 문학을 발전시켜 나가는 태도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p> <p>가. 문학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문학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갖추고 능동적으로 문학 활동을 한다.</p> <p>나. 문학 수용과 생산 활동을 통하여 언어에 대한 통찰력을 기르고,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기른다.</p> <p>다. 문학을 통하여 인간과 세계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문학의 가치와 이辱다움을 향유하며, 심미적 안목을 높인다.</p> <p>라. 한국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이해하고, 우리 공동체의 문학 문화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p>

한국의 경우를 보면 공통과정(7~9학년군)과 선택과정 '국어I'에서는 문학에 대한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지식의 습득과 활용을 강조하고 있고, 선택과정 '국어II'에서는 문학에 대한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의 습득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국어능력의 함양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비해 선택과정 '문학'에서는 문학의 가치 인식, 문학의 수용과 생산 능력 함양, 한국문학과 문화 이해 등으로 폭넓게 그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데, 특히 내용체계상 실제의 하위 영역인 지식, 기능, 태도 중 '기능'이 '문학'에서는 '수용과 생산'으로 되어 있다. 대체로 중국에 비해 단계 과정별로 문학교육의 내용 선정이나 제재 선정 등에 있어서 체계성을 확보하고 있고, 지식이나 활동 부분에 있어서도 기초에서 심화 단계로 나아가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의 국어과 과정별 목표에서 문학의 학습목표는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살펴보자.

표 2. 2011중국 국어과(어문) 과정별 목표

영역		목표
초중 과정	어문	<p>과정 목표는 지식 및 능력, 과정 및 방법, 정서태도 및 가치관 세 가지 요소를 위주로 설정하였다. 세 가지 요소가 서로 삼투되어 하나로 융합되기도 한다. 목표 설계의 목적은 국어 소양의 전반적인 향상에 있다.</p> <p>1. 국어 학습 과정 중에서 애국주의, 집단주의, 사회주의 사상도덕 및 건전한 심미관을 양성시키고, 개성을 발전시키며, 창의성과 협력정신을 육성시켜서 점차 적극적인 인생</p>

초중 과정	어문	<p>태도와 올바른 세계관, 가치관을 형성시키도록 한다.</p> <p>2. <u>중화문화의 풍부함을 인식시키고, 민족 문화 지혜를 흡수하며, 당대 문화생활을 관심을 갖게 하고,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며, 인류 우수 문화의 영양을 흡수해서 문화 품위를 향상시킨다.</u></p> <p>7. <u>독립적인 읽기 능력을 갖추며, 여러 가지 읽기 방법을 습득하고 응용할 수 있고, 비교적으로 풍부한 축적과 좋은 어감이 있다. 감정 체험을 치중하고, 감지와 이해의 능력을 발전시키며, 일상의 책, 신문, 잡지를 읽을 수 있고, 초보적인 문학작품 감상을 할 수 있으며 자신의 정신세계를 풍요롭게 한다. 참고서를 빌려 쉬운 문어문을 읽을 수 있고, 우수 시문 240편을 외울 수 있으며, 9년 동안의 과외 독서량이 400만자 이상이어야 한다.</u></p>
		<p>학생은 고등학교 국어 교육과정의 학습을 통해서 아래와 같이 다섯 분야에서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p> <p>축적/통합: 선택한 목표를 중심에 놓아서 국어의 축적을 강화할 수 있다. 양호한 현대 중국어 어감과 초보적인 문어문 어감을 갖는다. 학습 방법의 다양성을 알고, 국어 학습의 기본 방법을 파악하며 수요에 따라 적당한 방법을 이용해서 독서와 교류 중의 문제를 해결한다. 축적의 과정에서 정리를 중시하고, 자신의 특징에 따라서 장점을 발양하고 단점을 보완하며 개성이 있는 국어 학습 방식을 점차 형성시킨다. 국어 실천을 통해서 이미 획득한 지식, 능력, 방법, 감정, 태도와 가치관 등 요소를 융합하여 조정함으로써 국어 소양을 착실하게 향상시킨다.</p> <p>감수/감상: 우수한 작품을 읽고, 언어를 음미하면서, 작품에서 드러난 사상, 예술적 매력을 감수함으로써 상상력과 심미력을 발전시킨다. 독서에서 자연과 인생의 달체로움을 직접 느껴보고, 생활을 사랑하고,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예술과 과학 중의 미(美)를 감수하고, 심미의 경지를 높인다. 독서와 감상을 통해서 정서를 도야하고, 조국과 국어를 사랑하는 감정을 심화하며 중화 문화의 넓음과 깊음을 느끼게 하고, 고상한 정취를 추구하며 도덕 수양을 향상시킨다.</p> <p>사고/깨달음: 자신의 목표에 따라서 고전명작과 다른 우수한 읽을거리를 골라 읽으면서 텍스트와 대화함으로써 그 풍부한 내용을 깨닫고, 인생 가치와 시대정신을 탐색하며 민족 사명감과 사회 책임감을 증강시킨다. 언어, 문학과 문화 현상에 대한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탐구를 질의(質疑)하는 습관을 양성하고 사고품질을 발전시키며 사고의 깊이와 비판성을 증강시킨다. 교류와 생각 충돌을 즐기고, 서로 토론하고 연구함으로써 깨달음을 심화하여 함께 발전한다. 독서와 사고를 통해서 동서고금의 우수한 문화의 영양을 흡수하여 점차 자신의 생각, 행위 규칙을 형성하고, 적극적이고 향상을 위한 인상 이상을 세운다.</p> <p>응용/개발: 생활과 다른 분야의 학습에서 정확하고 능숙하게 효과적으로 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문화 의식을 증강하고 인류 문화유산의 계승을 중시하고,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 이해하고, 당대 문화생활을 관심하며 문화 현상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배우며 선진 문화의 전파와 교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국어 응용에서 시야를 넓히고, 초보적으로 자신이 배운 국어의 잠재력과 경향을 인식하고, 또 수요와 가능성에 따라 자신이 좋아하는 영역에서 발전할 수 있다. 다른 영역의 학습을 중시하고, 국어 학습의 범위를 넓히며 광범한 실천을 통해 국어의 종합적인 응용 능력을 향상시킨다.</p> <p>발견/참신: 언어, 문학과 중국과 외국의 문화 현상을 주의해서 관찰하고, 예사로운 사실과 과정에서 문제를 발견하는 것을 배우고, 탐구의식과 문제를 발견하는 예민성을 증강하며 탐구능력과 탐구 성과의 질을 향상시킨다. 형상 사유와 추상 사유를 발전시키고, 디각도 다단계의 독서를 배우며 텍스트에서 새로운 의의를 발견함으로써 우수 작품을 자주 읽는데 자주 새로운 것을 느낀다는 체험을 얻는다. 현대적인 관념과 발전의 눈으로 고대 작품의 내용과 사상 경향을 살펴보는 것을 배우고 자신의 주장을 제기한다. 꾸준한 탐색에서 치밀하고 실제적인 것을 추구하는 학풍을 점차 양성하며 타인의 성과를 존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견해도 용감하게 내세울 수 있다. 미지 세계에 대해서 한결같이 강한 취미와 열정을 품고, 용감하게 참신하여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며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 보며 사고의 참신과 표현의 참신을 추구한다.</p>
고중 과정	어문	

중국의 국어과 과정별 목표를 보면 초중(7~9학년) 과정에서는 특히 유의해서 살펴볼 부분이 다음과 같은 부분이다.

7. ……초보적인 문학작품 감상을 할 수 있으며 자신의 정신세계를 풍요롭게 한다. 참고서를 빌려 쉬운 문어문을 읽을 수 있고, 우수 시문 240편을 외울 수 있으며, 아홉 년 동안의 과외 독서량이 400만 자 이상이어야 한다.¹¹

초보적인 문어문의 이해를 위한 토대를 닦고, 우수 시문 240편을 암송해야 하며, 9년 동안의 과외 독서량이 400만 자 이상이어야 한다는 목표 속에는 문화의 전수나 계승에 있어서 양적 지표를 중시하는 중국 교육과정의 특징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관규(2013)는 이러한 중국 교육과정의 특징을 부록의 높은 비중에서 찾고 있다.¹²

고중 과정에서는 학습 목표를 축적/통합, 감수/감상, 사고/깨달음, 응용/개발, 발견/참신의 5개 분야로 나누어 설정하고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기술하였다. 초중 과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목표가 위계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보다 구체적이어서 필수 과목이나 선택 과목에도 중요하게 참고될 수 있다.

양국의 국어과 교육과정의 특징에 대해서 이복자(2007)는 한국은 국어 교육 과정의 구성체계, 수준별 교육과정, 창조적 능력의 신장을 강조, 문학교육의 중시, '방법' 영역의 체계화와 구체화 등 5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반

11 “全日制義務教育語文課程標準”.

12 “중국 교육과정에서 주목되는 것은 46쪽에 달하는 ‘부록’이다. 본문이 달랑 34쪽인데 부록은 46쪽으로 전체의 57.5%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유구한 문화를 반영하여 각종 시문의 목록을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법 수사 지식, 글자표, 상용한자 등 실제로 교수 학습에 필요한 것들을 제시해 주고 있다.”(이관규(2013), 「한국·중국·미국의 국어과 교육과정 비교 연구」, 『한글』 300, 한글학회, p. 11).

“중국의 교육과정에서는 따로 부록을 설정하여 교수 학습용 문학작품 목록을 135수 제시하고 있고, 핵심적인 어법과 수사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구체적인 교수 학습 용 한자 목록 3500자를 제시하고 있다.”(이관규(2013), 23).

면, 중국은 어문 교과의 도구성 강조, 기본 능력의 양성을 강조, 수용성 중심의 교과과정, ‘평가’ 영역이 전면적이고 구체화, 국어의 실천활동을 강조, ‘고문’ 교육을 중시 등 6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¹³ 문학 영역만을 놓고 볼 때도 체계성의 측면에서는 한국이 앞선 반면, 실천성과 문화적 가치의 중시 면에서는 중국이 앞서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문학 영역으로 좁혀 양국의 성취 기준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표 3. 한국·중국의 중학교(7~9학년) 문학 영역의 학습 목표 비교

한국	중국
<p>(학년군 성취 기준)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통합적인 국어 능력을 갖춘다. 상대의 의도를 고려하여 상호 작용하고 국어 생활에 대한 관심을 다양한 국어 문화의 세계로 넓혀 간다. 여러 상황에 적합하게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여러 유형의 글을 비판적으로 읽으며, 표현 효과를 고려하면서 글을 쓴다. 어휘 능력을 확장하고 국어 문법의 주요 내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며, 문학 작품을 다양하면서도 주체적인 관점으로 해석한다.</p> <p>(영역 성취 기준) 문학의 다양한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관점과 방법으로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며 자신의 일상적인 삶을 작품으로 표현한다.</p> <p>(내용 성취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유, 운율, 상징 등의 표현 방식을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하고 표현한다. (2) 갈등의 진행과 해결 과정을 파악하며 작품을 이해한다. (3) 다양한 관점과 방법으로 작품을 해석한다. (4) 표현에 드러나는 작가의 태도에 주목하며 작품을 이해하고 표현한다. (5) 작품의 세계가 누구의 눈을 통해 전달되는지 파악하며 작품을 수용한다. 	<p>6. 사실 작품과 허구 작품을 구별할 수 있고, 시조, 수필, 소설, 전통극 등 문학 양식을 이해한다.</p> <p>7. 문학 작품을 감상할 때 자신의 감정 체험이 있고, 초보적으로 작품의 깊은 의미를 터득함으로써 자연, 사회, 인생에 유익한 계시를 얻는다. 작품 중 감동적인 장면과 캐릭터에 대해 자신의 느낌을 말할 수 있으며, 작품에서의 표현력이 뛰어난 언어를 음미한다.</p> <p>9. 고대의 시와 사를 낭독하고, 쉬운 문어문을 읽고, 주석과 참고서를 이용해서 기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축적, 깨달음과 응용을 중시하여 자신의 감상 품위를 향상시킨다.</p> <p>12. 독서 계획을 짜는 것을 배우고, 각종 유형의 읽을거리를 폭넓게 읽는다. 과외 독서량이 최소한 260만 자가 된다. 매 학년마다 2~3부의 명저를 읽는다. 우수 시문 80편을 외운다.</p>

13 이복자(2007), 「한국과 중국의 중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비교 연구」, 『새국어교육』 75, 한국국어교육학회, pp. 249~288.

<p>(6) 사회·문화·역사적 상황을 바탕으로 작품의 의미를 파악한다.</p> <p>(7) 작품의 창작 의도와 소통 맥락을 고려하며 작품을 수용한다.</p> <p>(8) 자신의 주체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평가한다.</p> <p>(9) 자신의 일상에서 의미 있는 경험을 찾아 다양한 작품으로 표현한다.</p> <p>(10) 문학이 인간의 삶에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 이해한다.</p>	
---	--

〈표 3〉은 양국의 중학교(7~9학년군) 국어과 학습 목표 중 문학 영역의 성취 기준을 정리 비교한 내용이다. 한국의 공통과정 국어과의 체재를 보면 “1. 추구하는 인간상-2. 학교급별 교육 목표, 3. 목표, 4. 내용의 영역과 기준, 5. 교수 학습 방법, 6. 평가”의 순으로 되어 있는데,¹⁴ 이는 이전 교육과정의 체제인 ‘1. 성격-2. 목표-3. 내용-4. 교수·학습 방법-5. 평가’의 체계에서 상당히 변화된 것이다. 이 중 ‘4. 내용의 영역과 기준’의 ‘나. 학년군별 세부 내용’ 부분에 위 표에 나오는 학년군, 영역, 내용으로 체계화된 성취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¹⁵ 이를 보면 문학 양식의 감상이나 해석에 있어서는 장르적 속성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하되, 다양하고 주체적인 관점을 중시하며, 이러한 소양이 토대가 되어 문학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을 중요한 성취 기준의 요소로 서술하고 있다.¹⁶ 중국의 7~9학년 국어과 교육과정은

14 2011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15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기간이 10년에서 9년으로 감축되면서 성취 기준이 251개에서 151개로 줄었다. 고등학교 전 과정은 선택 과목 체제로 구성되었다. 이전 교육과정에 서는 공통과정 중학교(7~9학년)의 성취 기준이 학년별로 제시되어 있고 모두 14개였는데, 2011 교육과정에서는 학년군별로 제시하면서 모두 10개의 성취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2011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시안개발 연구서).

16 공통과정 ‘국어’ 문학 영역의 내용 체계를 보면 실제를 상위에 놓고 ‘지식, 수용과 생산, 태도’로 구성하고 있다.

문학

실제

- 다양한 갈래의 문학
- 시(시가), 소설(이야기), 극, 수필, 비평
- 다양한 매체와 문학

‘글깨치기(識字與寫字)’, ‘읽기(讀解)’, ‘쓰기(寫作)’, ‘말하기 · 듣기(口語交際)’의 4개 영역으로 나누어 성취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중 문학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읽기’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 여기에는 모두 12개의 성취기준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 중 문학과 관련된 것은 <표 3>과 같이 4개이다. 여기서 보면 다양한 문학 양식에 대한 이해, 감상 능력의 배양, 일정한 양의 독서와 암송 등이 주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한국의 교육과정에 비해 위계나 체계성을 부족하지만 문학작품에 대한 안목과 감상 능력을 기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양¹⁷을 제시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여기서 보면 중학교 단계에서 암기해야 할 시문을 80편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50편은 목록으로 추천하고 그 외의 30편은 교재편집원이나 교사가 보충 추천하기로 되어 있다. 고등학교 국어과 문학 영역의 학습 목표를 보면 한국의 교육과정에서는 모두 선택과목에 해당하지만 선수과목 <국어I>, 연계 과목 <국어II>, 선택과목 <문학>으로 단계별로 성취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국어I>은 3개, <국어II>는 3개, <문학>은 14개 총 20개의 기준으로 되어 있고, 대체로 문학사적 지식의 이해, 문학의 수용과 창작, 문학을 통한 타자 체험과 성찰적 태도 등이 중심이 되고 있다.¹⁸

지식	수용과 생산	태도
• 문학의 본질과 속성	• 작품 이해와 해석	• 문학의 가치와 중요성
• 문학의 갈래	• 작품 감상	• 문학에 대한 흥미
• 문학 작품의 맥락	• 작품 비평과 소통	• 문학의 생활화
	• 작품 창작	

17 “과외 독서량은 최소한 260만 자가 된다. 매 학년마다 2~3부의 명저를 읽는다. 우수 시문 80편을 외운다.

18 한국 고등학교 국어과 문학 영역의 학습 목표를 과정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국어I - [문학]

- (13) 문학 갈래의 개념을 알고 각 갈래의 특징을 이해한다.
- (14) 문학 작품에 나타난 작가의 개성을 이해하고 작품을 감상한다.
- (15) 문학은 가치 있는 내용을 언어로 형상화한 예술이며 사회적 소통 활동임을 이해 한다.

이에 비해 중국의 고등학교 과정은 성취 기준을 구체적으로 계량하기 어려운데 대략 독서와 감상 14개, 시가와 산문 6개, 소설과 연극 7개 등으로 되어 있다.¹⁹ 감상의 태도와 방법, 대상 텍스트의 유형, 감상의 효과와 활용 등이 중심이 되고 있어서 체계성보다는 문화적 의미나 가치를 강조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제 한·중 양국 간 제재 선정 기준이나 성취 기준 등에 대한 비교를 토대로 양국 교과서의 고전문학 텍스트 목록 양상의 특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 국어II - [문학]

- (13) 전승 과정에 유의하여 한국 문학의 흐름을 이해한다.
- (14) 문학이 정서적, 심미적 삶을 고양함을 이해하고 작품을 수용·생산한다.
- (15) 문학의 수용과 생산 활동을 통해 다양한 가치를 비평적으로 이해하고 실현한다.

□ 문학

[문학의 수용과 생산]

- (1) 섬세한 읽기를 바탕으로 작품을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감상하며 평가한다.
- (2) 작품은 내용과 형식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이루어짐을 이해하고 감상하며 창작한다.
- (3) 다양한 매체로 구현된 작품의 창의적 표현 방식과 심미적 가치를 문학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수용한다.
- (4) 문학이 예술, 인문, 사회 등 인접 분야와 맺고 있는 관계를 이해한다.
- (5) 다양한 시각과 방법으로 작품을 재구성하거나 창작한다.
- (6) 작품을 비판적·창의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발표하여 서로 평가한다.

[한국 문학의 범위와 역사]

- (7) 대표적인 작품을 통해 한국 문학에 나타난 전통과 특질을 이해한다.
- (8) 한국 문학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 (9) 한국 문학 갈래의 전개와 구현 양상을 통하여 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위를 이해한다.
- (10) 보편성과 특수성의 관점에서 한국 문학과 외국 문학을 이해한다.

[문학과 삶]

- (11) 작품의 이해와 감상의 결과를 자신의 삶과 관련하여 내면화한다.
- (12) 문학 활동을 통하여 창의적인 사고를 배양하고 이를 표현한다.
- (13) 문학을 통하여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며 삶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수용한다.
- (14) 문학 활동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공동체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소통한다.

19 教育部《高中語文新課程標準》참조.

III. 중국 어문 교과 고전문학 텍스트의 목록 양상 분석

이 장에서는 중국 어문 교육과정의 교과서에서 수록하고 있는 고전문학 텍스트의 목록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 고중 과정표준에 따라 사용되는 ‘어문’ 교과서를 지역별로 살펴보고, 수록된 고전문학 텍스트의 목록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의 중등 과정은 초중 과정과 고중 과정으로 나뉘는데 초중은 한국의 중등과정에 해당하는 7~9학년이다. 한국의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1~6학년과 초중 과정에서 배우는 어문교과서는 국정교과서이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그리고 1~6, 7~9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국가적으로 제시한 특정한 작품들을 암송해야 한다.²⁰ 그리고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고중 과정에서는 검정 체제에 따라 전국 단위에서 채택 가능한 인민교육출판사의 ‘어문’ 교과서와 성(省) 단위에서 쓰이는 교과서가 쓰이고 있다. 초중 과정과 같이 암송에 대한 강제는 없으나 초중 과정 교육과정 목록에서 제시된 주요 시대나 작가의 양식과 작품들이 보다 폭넓게 선정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각 학교 단위나 교사 차원에서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 분석대상으로 삼은 것은 2011년에 개정된 중국어문과정표준에 따른 고중과정 ‘어문’ 교과서 중 가장 많이 채택되고 있는 7종의 교과서의 고전문학 텍스트 목록이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중국 어문과정표준에 따른 초중 과정 학생용 ‘어문교과기준’에서 제시한 50여 편의 주요 작가들을 중심으로 고중 ‘어문’ 과정의 목록을 추출

20 「全日制義務教育語文課程標準」(2010수정판)을 보면, ‘제2부분 과정 목표’에서 ‘一. 총 목표’의 일곱 번째 “7. 독립적인 읽기 능력을 갖추며, 여러 가지 읽기 방법을 습득하고 응용 할 수 있고, 비교적으로 풍부한 축적과 좋은 어감이 있다. 감정 체험을 치중하고, 감지와 이해의 능력을 발전시키며, 일상의 책, 신문, 잡지를 읽을 수 있고, 초보적인 문학작품 감상을 할 수 있으며 자신의 정신세계를 풍요롭게 한다. 참고서를 빌려 쉬운 문어문을 읽을 수 있고, 우수 시문 240편을 외울 수 있으며, 9년 동안의 과외 독서량이 400만 자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였으며, 창작시대와 양식별로 그 목록의 성격을 살펴보았다. 수록 양상은 아래와 같다.

표 4. 중국 고중 어문교과서 고전문학텍스트 목록 양상

	語文版	滬教版	人教版
	屈原列傳(節選)(司馬遷), 歸園田居(其一)(陶淵明), 錦瑟(李商隱), 短歌行(其一)(曹操), 登高(杜甫), 登嶽陽樓(杜甫), 登幽州台歌(陳子昂), 旅夜書懷(杜甫), 鹿鳴(小雅)(詩經), 李憑箜篌引(李賀), 氓(衛風)(詩經), 夢遊天姥吟留別(李白), 無衣(秦風)(詩經), 伐檀(魏風)(詩經), 兵車行(杜甫), 琵琶行(並序)(白居易), 詞 念奴嬌 赤壁懷古(蘇軾), 詞 聲聲慢(李清照), 詞 永遇樂 京口北固亭懷古(辛棄疾), 書愤(陸遊), 石頭城(劉禹錫), 宣州謝眺樓餞別校書叔雲(李白), 燕歌行(高適), 元曲 雙調 夜行船 秋思(馬致遠), 終南山(王維), 蜀道難(李白)	江上(王安石), 蒹葭(詩經), 科夜讀書每以二鼓盡爲節(陸遊), 關山月(陸遊), 九月齊山登高(杜牧), 唐宋詩四首 舊約門(韓愈), 讀《山海經》(陶淵明), 獨坐敬亭山(李白), 冬夜讀書示子聿(陸遊), 登金陵鳳凰台(李白), 登樓(杜甫), 旅夜書懷(杜甫), 晚泊潯陽望廬山(孟浩然), 望洞庭湖贈張丞相(孟浩然), 夢遊天姥吟留別(李白), 泛舟(朱熹), 琵琶行(白居易), 聲聲慢(尋尋覓覓)(李清照), 宋金詞 沁園春 登建康賞心亭(辛棄疾), 宋金詞 玉樓春 戲賦雲山(辛棄疾), 送李副使赴頃西官軍(岑參), 宋詞 念奴嬌(洞庭青草)(張孝祥), 宋詞 木蘭花慢(可憐今夕月)(辛棄疾), 宋詞 水調歌頭(明月幾時有)(蘇軾), 水龍吟(過南劍雙溪樓)(辛棄疾), 鵝湖寺和陸子壽(朱熹), 安定城樓(李商隱), 永遇樂(千古江山)(辛棄疾), 王風·黍離(詩經), 偶題(朱熹), 飲酒(結廬在人境)(陶淵明), 鵲鵲天(祖國沉淪感不禁)(秋瑾), 長歌行(漢樂府), 終南山(王維), 采薇(詩經), 清溪行(李白), 致酒行(李賀), 把酒問月(李白), 漢江臨泛(王維)	歸園田居(其一)(陶淵明), 錦瑟(李商隱), 念奴嬌 赤壁懷古(蘇軾), 短歌行(曹操), 登高(杜甫), 離騷(屈原), 馬嵬(其二)(李商隱), 氓(詩經), 琵琶行並序(白居易), 聲聲慢(尋尋覓覓)(李清照), 水龍吟 登建康賞心亭(辛棄疾), 永遇樂 京口北固亭懷古(辛棄疾), 詠懷古跡(其三)(杜甫), 定風波(莫聽穿林打葉聲)(蘇軾), 采薇(詩經), 蜀道難(李白), 秋興八首(其一)(杜甫), 醉花陰(薄霧濃雲愁永晝)(李清照)
운문			

산문	論民本(孟子), 論修身(論語), 滕王閣序(節選)(王勃), 報任安書(節選)(司馬遷), 師說(韓愈), 書湖陰先生壁(其一)(王安石), 信陵君竊符救趙(節選)(司馬遷), 阿房宮賦(杜牧), 與高司諫書(歐陽修), 段太尉逸事狀(柳宗元), 赤壁賦(蘇軾), 崔杼弑其君(左傳), 頌蘭相如列傳(節選)(司馬遷), 鴻門宴(司馬遷)	江水三峽(水經注), 歸去來兮辭(陶淵明), 記舊本韓文後(歐陽修), 答韋中立論師道書(柳宗元), 滕王閣序(王勃), 廉頤蘭相如列傳(司馬遷), 伶官傳序(歐陽修), 愚溪詩序(柳宗元), 文與可畫竹(蘇軾), 富與貴 是人之所欲也(論語 七則), 師說(韓愈), 石鐘山記(蘇軾), 送董邵南遊河北序(韓愈), 送東陽馬生序(宋濂), 始得西山宴遊記(柳宗元), 阿房宮賦(杜牧), 我所欲也 等(孟子 二章), 遊褒禪山記(王安石), 子路 曾晳冉有 公西華侍坐(論語), 自表後主(諸葛亮), 前赤壁賦(蘇軾), 種樹郭橐駘傳(柳宗元), 秦晉崤之戰(左傳), 秋聲賦(歐陽修), 荊軻刺秦王(戰國策), 後赤壁賦(蘇軾)	寡人之於國也(孟子), 歸去來兮辭(陶淵明), 滕王閣序(王勃), 廉頤蘭相如列傳(司馬遷), 李賀小傳(李商隱), 師說(韓愈), 山中與裴秀才迪書(王維), 阿房宮賦(杜牧), 遊褒禪山記(王安石), 赤壁賦(蘇軾), 燭之武退秦師(左傳), 荊軻刺秦王(戰國策), 鴻門宴(司馬遷)

	北京版	粵教版	蘇教版	魯教版
운문	登高(杜甫), 鹿柴(王維), 夢遊天姥吟留別(李白), 琵琶行(白居易), 宋詞 念奴嬌·赤壁懷古(蘇軾), 宋詞 菩薩蠻·書江西造口壁(辛棄疾), 宋詞 聲聲慢(李清照), 宋詞 蘇幕遮(範仲淹), 宋詞 銀頭鳳(陸遊), 辛夷鳥(王維), 春夜喜雨(杜甫)	〈雙調〉宮曲 歲暮(馬致遠), 歸園田居(陶淵明), 錦瑟(李商隱), 念奴嬌·赤壁懷古(蘇軾), 短歌行(曹操), 登高(杜甫), 登池上樓(謝靈運), 晚登三山還望京邑(謝靈運), 氓(詩經), 琵琶行(並序)(白居易), 山居秋暝(王維), 書愤(陸遊), 石頭城(劉禹錫), 聲聲慢(李清照), 詩詞三首 虞美人(李煜), 永遇樂·京口北固亭懷古(辛棄疾), 離騷(節選)(屈原), 靜女(詩經), 蜀道難(李白)	桂枝香金陵懷古(王安石), 錦瑟(李商隱), 念奴嬌·赤壁懷古(蘇軾), 登高(杜甫), 琵琶行(並序)(白居易), 聲聲慢(李清照), 永遇樂·京口北固亭懷古(辛棄疾), 蝶戀花(晏殊), 采薇(詩經), 草書歌行(李白), 蜀道難(李白)	歸園田居(其一)(陶淵明), 念奴嬌·赤壁懷古(蘇軾), 夢遊天姥吟留別(李白), 兵車行(杜甫), 琵琶行(白居易), 山居秋暝(王維), 永遇樂·京口北固亭懷古(辛棄疾)

산문		季氏將伐廟與(論語), 寡人之於國也(孟子), 段太尉逸事狀(柳宗元), 報任安書(節選)(司馬遷), 師說(韓愈), 阿房宮賦(杜牧), 遊褒禪山記(王安石), 赤壁賦(蘇軾), 鄭伯克段於鄢(左傳), 鴻門宴(司馬遷)	季氏將伐廟與(論語), 寡人之於國也(孟子), 滕王閣序(並詩)(王勃), 廉頗藺相如列傳(節選)(司馬遷), 報任安書(節選)(司馬遷), 師說(韓愈), 始得西山宴遊記(柳宗元), 阿房宮賦(杜牧), 前赤壁賦(蘇軾), 秋聲賦(歐陽修), 鴻門宴(司馬遷)	屈原列傳(司馬遷), 滕王閣序(王勃), 報任安書(司馬遷), 師說(韓愈), 石鐘山記(蘇軾), 阿房宮賦(杜牧), 遊褒禪山記(王安石), 齊桓晉文之事(孟子), 鴻門宴(司馬遷), 鵝之賦(左傳)

* 魯教版(山東教育出版社), 蘇教版(江蘇教育出版社), 滬教版(上海教育出版社), 粵教版(廣東教育出版社), 人教版(人民教育出版社)

1. 창작 시대별 양상

	先秦	漢魏-隋	唐-5代	宋	元	明	清
운문(88편)	9	5	39	33	2	0	0
산문(41편)	14	8	11	7	0	1	0

전체적으로 작품의 수는 운문이 산문의 2배를 넘을 정도로 비중이 높다. 그리고 시대별로 보면 운문은 당송 시대 작품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근대로 올수록 그 비중이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다. 다만 선진 시대 시경(詩經)의 시가 상대적으로 많이 소개되고 있다는 점은 고시의 원형성과 전범성에 대한 문학사적 이해의 필요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산문의 경우는 선진시대와 漢魏-隋 시대부터 당송 시대에 이르기까지 고르게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선진 시대의 작품이 상대적으로 많이 수록된 이유는 논어와 맹자와 같은 윤리·사상적 내용과 역사적 기록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게 인식된 결과로 추정된다.

다만 주목할 부분은 2011년 개정 어문교과과정의 초중 과정 암송 목록에는 여성작가의 작품이 한 편도 제시되어 있지 않았는데, 고중 과정의 교과서를 보면 모두 6종의 교과서에서 송대 여성시인인 이청조(李清照)의 작품을

소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5종에서는 〈聲聲慢〉을, 1종에서는 〈醉花陰〉을 수록하고 있는데, 특히 전국 단위에서 쓰이는 人教版 ‘어문’ 교과서에는 2편 모두를 소개하고 있다. 동 시대에 주숙진(朱淑眞)과 위부인(魏夫人), 송나라 이전의 화예부인(花蕊夫人 883-926), 어현기(魚玄機 844-871), 설도(薛濤 768-831), 이야(李冶 ?-784) 같은 시인도 있으나 특히 이청조의 작품에 집중한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소개된 두 작품의 경우 언어적 측면에서 뛰어난 미감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특유의 여성 정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후대에도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던 작품이다. 중국 여성시인의 최고봉으로 인정받는 이청조는 작품의 품격과 가치의 면에서 남성 작가와 대등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으며, 몸은 여자이지만 마음은 남성보다 훨씬 더 열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교과서가 이러한 문화사적 평가를 적극 반영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2. 양식별 수록 양상

	古詩		近體詩(絕句, 律詩)	詞	曲
	先秦-隋	唐 이후			
운문(88편)	13	7	49	17	2

전통적인 중국 시가의 형식적 갈래 중 중요한 갈래들을 망라하여 작품을 제시하고 있다. 고시는 형식미를 완비한 근체시 이전의 형식을 통칭하는 말로, 고대 한시의 일반적 명칭이다. 멀리는 민요를 채집한 시경에서 시작하여 당 이후 근대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창작되고 있는, 가장 오랜 기간 동안 향유되고 있는 시형식이다. 근체시는 견고한 형식미를 가지고 있는 한시 형식으로, 당나라 시대에 완성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당나라 시대에 완성된 근체시 형식 중에 배율은 그 수가 절구나 율시에 비해 현저하게 적다. 그리고 절구와 율시 두 형식은 한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외

에 장형의 詞 양식도 상당수 수록하고 있다.

주요 작가를 보면 당나라를 대표하는 시인으로 李白과 杜甫를 비롯해 杜牧, 李商隱, 王維, 白居易, 劉禹錫 등이 소개되고 있고, 송나라의 시인으로는 蘇軾, 王安石, 陸游, 李清照, 辛棄疾 등이 소개되어 있다. 이는 근체시의 형식이 완성되고 중국 역대 왕조 가운데 한시문학이 가장 발달했던 시기가 당송 시대였음을 반영한 결과이다.

	語錄	歷史	說	記	書	序	傳狀	地理
산문(41편)	9	10	1	5	5	5	5	1

산문에서의 특징은 선진시대의 글과 역사 관련 글을 다수 수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어록에 해당하는 9편은 주로 논어와 맹자에서 가져온 글인데 논어의 문장은 짧은 글 위주로 구성되었고 맹자의 문장은 긴 글 위주로 구성되었다. 선진시대 다양한 사상가들의 글 중에서도 특히 논어와 맹자의 글을 발췌하여 수록한 것은 역대 중국 왕조와 사상의 주류를 이루었던 유가사상의 본류를 담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역사서의 내용·역시도 문학적 재미와 함께 후대에 계몽적 주제를 전달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수록되고 있다.

산문의 다양한 양식 가운데 지리서인 〈水經〉에서 三峽에 대한 글을 선택한 것은 자국의 지리서로서 가장 최초에 이루어진 지리서인데다 그 내용이 매우 방대할 뿐만 아니라 三峽으로 상징되는 중국 산천의 위대함을 잘 보여줄 수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산문의 구성적 특징을 굳이 들자면, 文史哲로 대변되는 중국 전통적 인문학의 자료들을 고루 배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어록을 철학사상의 영역이라고 하고, 역사·지리를 사학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이 텍스트들은 중국 고대의 대표적 사상가들의 사상을 이해하며, 고대의 역사적 사건의 기록을 통해 역사를 이해하게 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나머지 양식

들은 여러 글쓰기 양식에 해당하면서도 문학적 성격이 뚜렷한 작품들로서 사람살이의 다채로운 양상과 함께 인간의 감정 표현의 다양한 면모들을 감상할 수 있는 자료들이라 할 수 있다.

IV. 한국 문학 교과 고전문학 텍스트의 목록 양상 분석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 문학교과서의 재재 선정 기준을 보면 교육과정, 학습자, 사회적 요구, 문학작품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²¹ 이 중 고전문학 텍스트의 선정에서는 특히 네 번째 문학작품의 특성에 제시된 기준들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보면 문학사적 대표성, 갈래의 다양성, 시대의 다양성, 작가의 다양성, 작품 수록 방법, 매체의 활용 가능성이 중심이 되고 있다. 이는 압축하면 문학사적 균형의 문제와 텍스트의 다양성 문제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이를 창작 시대별 양상과 양식별 수록 양상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창작 시대별 양상

	삼국시대 이전	고려시대	조선전기	조선후기	미상
고전시가(87)	10	13	22	33	9
고전산문(76)	6	9	5	46	10

문학 14종 26권에 수록된 고전문학 작품을 망라하여 시가와 산문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위 표에 나오듯이 숫자상으로는 양자가 균형 있게 배치되

21 각주 7 참조.

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가나 산문 모두 양적으로 조선후기 작품이 상대적으로 많이 수록되어 있는데, 특히 비율상으로 시가가 38%인데 비해 산문은 59%에 달해 과반이 훨씬 넘는 작품이 조선후기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본격적인 소설의 시대로 접어드는 문학사의 전환 때문이기도 하지만 국한문이 공존하면서 국문문학의 저변이 확대되고 문학의 유통 방식이 다양화된 문학현실을 교과서가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텍스트의 가독성과 역사적 상거의 인접성 등으로 인한 텍스트 친숙도 등도 한 이유가 될 수 있다.

이외에도 고전시가의 경우는 문학사의 흐름에 따라 꾸준히 장르의 지속과 변화 속에서 그 숫자가 늘어난 반면, 고전산문의 경우는 조선전기에 숫자가 다소 감소하는데 이는 텍스트 수의 증감 때문이 아니라 이 시기 문학사적으로 의미 있게 평가될 만한 한문소설이나 한문산문의 출현이 적었던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양식별 수록 양상

갈래	고대 가요	향가	고려 가요	경기체가 · 악장	시조	가사(10)	한시(10)	잡가 · 민요(10)
수	2	5	7	2	41	10	10	10
%	2.2%	5.7%	8.0%	2.2%	47%	11%	11%	11%

고전 시가 (87)	공무도하가(3) 구지가(7)	서동요(1) 처용가(1) 월왕생가(2) 제방매가(6) 천기파령가(7)	정음사(2) 서경별곡(7) 청산별곡(2) 장식가(2) 동동(5) 가사리(1) 민전춘별사(1)	한림별곡(4) 옹비어천가(2) 조선전기(15) 조선후기(23)	고려(3) 상춘곡(4) 민양정가(1) 시미인곡(6) 숙미인곡(5) 규원가(1) 누향사(4) 옹부가(1) 일동장유가(1) 덴동여미희전가(2) 화전가(1)	상춘곡(4) 민양정가(1) 시미인곡(6) 숙미인곡(5) 규원가(1) 누향사(4) 옹부가(1) 일동장유가(1) 덴동여미희전가(2) 화전가(1)	추아우중(2) 제기아산독서당(2) 송인(4) 독두사(1) 부벽루(1) 곡자(1) 제비한마리(1) 보리타작(2) 옹산이전(1) 절명사(3)	유산가(1) 시집살이노래(2) 켄마쿵쿵노새(1) 베풀노래(1) 밀양아리랑(1) 이리랑타령(1) 군미기노래(1) 명주모십기노래(1) 정선아리랑(1) 몽금포타령(1)

우선 고전시가를 살펴보면 문학사의 주요 갈래들이 대체로 망라되어 있으며 각각의 배치상의 특징들을 읽어낼 수 있다. 우선 고대가요의 경우 <공

무도하기(3)와 〈구지가〉(7)를 수록하고 있는데 집단적 주술적 성격이 강한 후자를 상대적으로 많이 싣고 있다. 이는 본격적인 서정시의 출현 이전 원형적인 노래의 형태로서의 고대가요의 성격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향가는 모두 5작품을 선정하고 있는데 대체로 작품 해석을 둘러싼 시비나 견해차가 적은 작품들이며, 서정적인 장르 특징을 잘 보여주는 10구체 사뇌가인 〈제망매가〉와 〈찬기파랑가〉를 많이 채택하고 있다. 고려가요는 모두 7작품이 선정되었는데 고려가요의 합성가요적 성격과 음악적 성격을 뚜렷이 보여주는 연장체의 작품들이 주로 수록되어 있다. 특히 여성화자의 정서가 잘 드러난 〈서경별곡〉과 〈동동〉을 여러 교과서에서 수록하고 있어서 고려가요의 장르 특성으로서 여성화자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기체가는 한림별곡을 일부 교과서에서 수록하고 있고 악장은 수록비중이 현저히 낮은 편이다. 시조는 대체로 조선전기/후기, 평시조/사설시조, 사대부남성/기녀 등 시대와 형식, 작자층 등의 성격을 고려한 배치 특성을 보여주고 있고, 가사의 경우는 조선후기로 갈수록 여성작의 규방가사 비중이 높아지는 특징을 보인다. 한시나 민요 역시 전체적으로 문학사 연구에서 새롭게 주목하는 작품이나 여성 담당층의 작품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수 %	설화·가전체	고전설	수필·비평	극	
	13	29	38%	7	
고전 신문 (76)	단군신화(5)	만복사자포기(1)	조운정(1)	온달전(1)	봉산탈춤(1)
	주몽신화(5)	이생규장전(9)	홍제월전(3)	집과기(1)	하회별신굿탈놀이(2)
	화왕계(2)	홍길동전(1)	유충렬전(1)	경설(1)	수영들놀음(1)
	조선설화(3)	최척전(2)	소대상전(1)	옹풍(1)	꼭두각시놀음(3)
	김해김호(3)	임진록(2)	예덕선생전(1)	책장수(1)	양주별산대놀이(1)
	지귀설화(1)	구운동(1)	호질(3)	처마설(1)	고성오광대놀이(2)
	공방전(4)	사씨남정기(7)	허생전(1)	주옹설(1)	산성일기(2)
	국수전(1)	홍보기(4)	광문자전(1)	도자설(1)	내가 사는 집(1)
	국선생전(2)	적벽가(3)	얼녀합양박씨전(1)	난중일기(1)	수오재기(4)
	청강사자현부전(1)	춘향전(5)	구복마동(1)	동곡의 집(1)	아들에게 보내는
	구름당당신선비(1)	심청가(3)	우주룡(1)	일야구도하기(1)	편지(1)
	세경본풀이(1)	수궁가(1)	콩쥐팥쥐전(2)	통곡할 만한 자리(2)	원이 아버지께(1)
	비리데기(3)	운영전(3)	이춘풍전(2)	큰누님박씨묘지명(1)	신신증수기(1)
			정기전(1)	공작관문고자서(1)	소전(1)
			옥단춘전(1)	해유록(海遊錄)(1)	유수묘지명(1)
			채봉강별곡(1)	조침문(2)	

산문에서의 특징은 전체적으로 소설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편이다.²² 특히 서사문학의 형성과정에서는 건국신화, 무속신화, 문현설화, 가전체 등의 작품들을 수록하고 있고, 조선전기의 소설은 《금오신화》중 <이생규장전>을 주로 수록하고 있다. 후기로 오면 영웅소설, 연암소설, 판소리계 소설 등이 지속적으로 선정되고 있는데, 소설사의 새로운 유형과 작품들이 다채롭게 선정되고 있다. 특히 <옥루몽>, <옥단춘전>, <채봉감별곡>등 근대에 인접한 19세기 작품들과 야담 작품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작품에 드러난 현실인식이나 변화하는 인정물태 등 시대성을 고려하면서도 대중적이고 통속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된 텍스트들이다. 전체적으로 한문/국문, 장편/단편, 남성/여성 등 텍스트 성격의 균형을 맞추면서도 흥미성이나 주제의 명료함 등 교육적 효과 또한 상당히 고려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수필이나 비평영역에 해당하는 기타 산문의 유형은 그 종류나 제재의 다양성이 더욱 그 폭을 넓혀가는 흐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문 양식으로서의 說이나 記에 해당하는 짧지만 무거운 주제의 산문부터 기행문이나 일기·편지류, 묘지명, 비평문으로서의 서발문 등 다양한 유형의 작품들이 채택되고 있다. 이는 문학사에서 새롭게 주목받는 작가의 등장(예를 들면 이학규나 심노승 같은 인물)이나 고전산문의 다양한 번역물의 등장으로 인한 고전작품의 대중화 현상 등을 교과서가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이상에서처럼 한국의 문학교과서에서 고전문학 텍스트의 선정은 대표성과 다양성을 중심으로 하되, 문학사의 수정이나 재편 과정을 부분적이나마 수용하려는 긍정적 노력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자국어 교육을 위한 제재 선정이나 자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활동의 구성 등에 있어서는 우리의 문학교육이 실천성을 충분히 담보해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22 판소리 작품들도 여기서는 소설의 범주에 포함시켜 다루기로 한다.

V. 결론

한국과 중국의 국어교과서 문학 영역의 작품 선정 기준이나 교과서 목록 양상을 살펴보면서 고전문학 텍스트의 언어적·문화적 가치에 대해서는 양국의 인식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교육과정이나 성취 기준, 작품 수록의 양상 등을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니 문학교육을 통해 거두고자 하는 교육적 가치에 대한 기대에 있어서는 차이도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의 문학교육은 어느 정도의 체계성을 확보하면서 성취 기준을 학습자의 단계별로 확대·세분화하는 특징을 보여주는데, 제재 수록에 있어서는 대표성, 다양성, 효율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중국의 문학교육은 별도의 독립된 영역이 없고 성취 기준도 체계성은 다소 부족한 편이나, 자국의 역사 문화와 자국어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하고 이를 바로 활용하고 실천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다.

학습자들에 대한 과중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비교적 표준화되고 효율적인 교육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는 한국의 고전문학 교육이 상당한 장점을 가진다. 하지만 전통에 대한 이해나 문화적 관심과 같은 추상적인 목표 외에 자국어에 대한 관심과 활용 수준을 높이는 데 얼마나 고전 텍스트가 기여하는가는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중국의 교육과정에 나타나는 양적 지표에 대한 집요한 관심과 감상의 방법 등은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참고문헌

교육과학기술부(2011), 「국어과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별책5])」.

김대행(1995), 『국어교과학의 지평』, 서울대출판부.

이관규(2006), 「세계의 자국어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 『새국어교육』 70, 한국국어교육학회, pp. 81-102.

_____ (2011), 「2011 국어과 교육과정의 실제와 과제」, 『국어교과교육연구』 17, 국어교과교육학회, pp. 7-37.

_____ (2013), 「한국·중국·미국의 국어과 교육과정 비교 연구」, 『한글』 300, 한글학회, pp. 5-34.

이복자(2007), 「한국과 중국의 중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비교 연구」, 『새국어교육』 75, 한국국어교육학회, pp. 249-288.

하루오시라네, 王숙영 옮김(2002), 『창조된 고전』, 소명.

중화인민공화국교육부(2011), 『全日制義務教育語文課程標準』.

_____ (2011), 『高中語文新課程標準』.

한국·중국의 국어과 교육과정 고전문학 텍스트 선정 비교 및 교과서 수록 양상

백순철 · 이창희

이 연구는 한국·중국의 국어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고전문학 텍스트의 선정 양상을 비교하고 교과서의 작품 목록 양상을 살펴는 데 목적을 둔다. 특히 교육과정에서 중시하는 부분과 교과서의 목록 양상을 통해서 한국과 중국의 국어과 교육과정의 유사성과 차이성을 밝혀 상호간 긍정적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

먼저 양국의 교육과정을 살펴 고전문학 텍스트의 선정 기준과 성취 기준을 비교해 보았다. 한국의 국어과 ‘문학’ 영역의 고전문학 텍스트 선정 기준의 특징은 ‘대표성, 다양성, 효율성’으로 집약되며, 중국 ‘어문’ 교과 고전문학 텍스트 선정 기준의 특징은 ‘역사성, 실천성’으로 집약된다. 특히 중국의 경우는 텍스트에 대한 양적 학습을 강조하고 문학교육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상대적으로 중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성취 기준에 있어서는 한국이 체계성과 지식 영역을 중시하는 반면, 중국은 문화적 의미와 가치를 상대적으로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양국의 국어과 교과서에 실린 고전문학 텍스트의 목록 양상과 그 특징을 고찰해 보았다. 중국의 경우는 고중 과정의 ‘어문’ 교과서 7종을 바탕으로 목록의 성격을 살펴보았고, 한국의 경우는 14종 26권의 문학 교과서를 바탕으로 목록의 성격을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창작시대별 양상과 양식별 수록 양상으로 나누어 그 특징적 국면을 정리해 보았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 고전문학 텍스트의 언어적·문화적 가치의 중요성

에 대해서는 양국의 차이가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한국이 비교적 표준화되고 효율적인 교육을 통해 학습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비해, 중국의 경우는 고전문학 텍스트에 대한 양적 학습의 확대를 통해서 자국의 역사 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거두고자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상호간에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되며, 우리의 경우는 특히 중국 교육과정의 양적 지표를 중시하는 점과 감상의 태도를 상세화하는 점 등에서 많은 점들을 시사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교과서의 문학사적 설명이나 학습 활동 등의 양상 등을 비교하는 구체적 작업 등이 이어진다면 보다 선명한 결론을 얻을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이는 다음 과제로 남겨둔다.

핵심어 고전문학 텍스트, 교육과정, 문학 교과, 대표성, 다양성, 효율성, 어문 교과, 역사성, 실천성, 성취 기준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Selection aspects of Classic Literature texts in Literature Curriculum and List features of Literature textbooks in Korean-Chinese

Paik, Sun Chul & Lee, Chang Hui

This paper analyzed selection aspects of Classic Literature texts in Literature Curriculum and List features of Literature textbooks in Korean-Chinese. Specially, This comparative study clarified similarity and difference between the two nations.

Firstly, In this paper maked a comparison criteria for selection and achievement standards between the two nations. The characteristics of criteria for selection of Korean Classic Literature texts suggests representative nature, variety and efficiency. The characteristics of criteria for selection of Chinese suggests historic nature and practical nature. The achievement standards in Korean Literature Curriculum stressed systemicity and knowledge. The achievement standards in Chinese Literature Curriculum stressed cultural values and social implications.

Secondly, this study considered List features in Korean-Chinese Literature textbooks. Literature textbooks(語文) of Chinese high school is seven kinds. Literature textbooks of Korean high school is twenty four volumes in fourteen kinds. In this, The analysis examined respectively historical aspect and genre aspects.

As a whole, All of Two nations emphasized cultural values of Classic Literature texts. However, Korean curriculum can lessen learner's burden for standardized and efficient education, while Chinese curriculum focused a lot of learning by memorizing. If Two nations should be exchange a mutual positive impact. it can be develop.

KEYWORDS Classic Literature text, Curriculum, Literature courses, Representative nature, Variety, Efficiency, Historic nature, Practical nature, Achievement standards